2019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메시지 13

아버지의 집 안에서 상호내재하는 생활을 삶

성경: 요 14:1-6, 20, 15:4-5, 갈 2:20, 골 1:2, 17

I.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영원한 공존과 상호내재에 대한 분명한 영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 — 마 28:19, 고후 13:14, 엡 3:14-17.

A.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영원히 공존하신다.
1. 아버지께서 하나님(벧전 1:2, 엡 1:17)이시며, 아들도 하나님 (히 1:8, 요 1:1, 롬 9:5) 이시며, 그 영도 하나님(행 5:3-4)이시다.
2. 아버지께서 영원하시고(사 9:6), 아들도 영원하시며(히 1:12, 7:3), 그 영도 영원하시다(히 9:14).
3.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공존하신다 — 요 14:16-17, 엡 3:14-17, 고후 13:14.

B.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영원히 상호내재하신다.
1.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상호내재의 방식으로 동시에 공존하신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는 서로 안에 상호적으로 거하신다 — 요 14:10-11, 26.
2. 아버지는 아들과 영 안에서 존재하시며, 아들은 아버지와 영 안에서 존재하시고 영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존재하신다. 신격의 셋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호적인 내주하심이 상호내재이다 — 요 14:10-11, 20, 26.
3.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공존하시며 상호내재하신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공존하시며 상호내재하신다.

II.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상호내재의 생활이다 — 요 15:4-5, 갈 2:20, 골 1:2, 17.

A. 주님의 부활의 날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요 14:20.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두 인격들이 함께 사는 생활이다 — 갈 2:20.

C.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존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상호내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호내재의 생활을 산다 — 골 1:2, 17, 요 14:20.

D.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합당한 개념은 상호내재이다 — 요 15:4-5.
1. 우리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결이 상호내재, 즉 상호적으로 거하는 것이다 — 요 15:4-5.
2.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산다 — 갈 2:20.
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요 1:12-13, 3:6)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셨고(골 1:27, 롬 8:10), 그 후에 우리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롬 6:3, 갈 3:27, 마 28:19).

E. 삼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은 우주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 마 28:19, 엡 3:14-17.

III. 그리스도인들로서 연합된 영 안에서 접붙여진 생명을 살 때 우리는 아버지의 집 안에서 상호내재의 생활을 산다 — 고전 6:17, 요 14:1-6, 20.

A. 요한복음 14 장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 요 14:1.
   1.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객관적이지만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주관적이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주관적인 믿음이다.
   2.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 — 요 3:15.

B. 요한복음 14 장 1 절부터 6 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오신 것은 믿는 이들인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본다.
   1.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아버지 자신에게로 가셨다 — 요 14:12, 28.
   2. 주님은 아버지께 가셨으며 그분의 의도는 그분의 제자들을 아버지의 신성한 인격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었다 — 요 14:5-6, 12, 20.
      a. 주님께서 육체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고 그분께서 가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였다 — 요 1:14, 14:20.
      b. 그분이 가신 길은 죽음과 부활에 의한 것이었고 그분이 가신 목적은 사람을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었다 — 요 14:6.
   3. 2 절에서 "내가 가서"라는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려고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서 언급된 교회의 건축이다.
   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한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 요 14:6, 20.

C. 요한복음 14 장 2 절에 있는 "나의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이다.
   1. 2 장 16 절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은 이 땅의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의 예표와 모형이며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대되었다 — 요 14:19-22.
   2. 14 장 2 절의 "나의 아버지의 집"은 하늘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
   3.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계시가 완전히 발전된다 — 딤전 3:15-16, 벧전 2:5, 엡 2:21-22.
   4. 요한복음과 신약 전체에서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이다 — 엡 1:22-23, 2:21-22, 딤전 3:15-16.

D.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 요 14:2.
   1. 많은 거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이다 — 롬 12:5, 고전 3:16-17.
   2.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건축물, 즉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할 곳들이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거할 곳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 엡 1:22-23, 2:21-22, 5:30, 고전 12:27.

E.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곳을 예비하신다는 것, 즉 구속을 성취하고 길을 열고 설자리를 만들 것임을 의미한다 — 요 14:2-3, 6.
   1. 죽음과 부활에 의해 주 예수님은 길을 내셨고 한 곳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하셨다 — 요 14:20.
   2.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 안에 설자리를 예비하셨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한 곳을 예비하셨다 — 요 14:2-3, 6.
   3.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이 확대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는 것이 된다 — 롬 12:4-5, 엡 5:30, 고전 12:27.
   4.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곳이 있고 몸 안에서 한 곳이 있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곳에서 상호내재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 — 요 14:2-3, 20, 고전 12:27.

© 2019 Living Stream Ministry